

## 쌀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특산물인 도시를

**김경희 인천시장**  
국도비 778억 추가 '현안 해결'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도 신설  
내년부터 개발 사업 '본격화'



3번의 도전 끝에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아 인천 최초 여성시장으로 취임한 김경희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김경희 시장은 취임식에서 강조한 '시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어 시장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되새기며 "인천시가 더 큰 걸음으로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3년, 하루하루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지난 1년이 새로운 인천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붙여 달려 나가겠다"며 "평생 몸으로 터득하고 배운 행정경험과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내 고향 인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인천시장에게서 인천시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본다.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돌아보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더더 부족함이 있겠지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담당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한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은 물론 인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분들을 기뻐할 때마다 달려가 지역의 현안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가감 없이 건의했다.  
그 결과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계로 지정됐던 인천시가 올해 초 단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 지정돼 국도비 778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면서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렇게 확보한 국도비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수립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영유아·장애인가정·어르신가정에 대한 난방비 지원, 특수해업종 지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민생안정에 신속하게 투입했다.

**-시민 불편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강조했는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공직사회 변화에 주력했다. 시민들의 고질적인 불만 있었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취임 즉시 '민원소통기동팀'과 '납부시정실'을 신설해 시민께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일부부터 복합적인 고충민원까지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시민중심, 현상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인천시를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첨단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부 공모에 과감하게 도전했고, 올해 초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제일고등학교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산업의 성장기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역할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인천시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반도체 중소 기업,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산업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리지구와 역세권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의 진행은**

중리지구는 올 하반기 민간공공주택을 분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다. 역세권 개발은 인천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가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천역세권은 지난 2020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고시돼 74만㎡에 1822세대, 계획인구 4555명의 아파트2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월에 착공돼 2026년도에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신도시역세권은 21.1만㎡에 2581세대, 계획인구 6453명 계획으로 2023년 6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활역세권도 52.4만㎡에 4328세대, 계획인구 1만387명 계획으로 2023년 6월 현재, 전락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어서너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답보상태였던 인천-충천간 국지도 70호선을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투입이 되도록 했다. 동인천IC와 부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장호원-여주 국도37호선 등 지역발전의 견인장 광역교통망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살피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도로망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안에 지역 내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어서너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이규상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해외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 우수 사례 등을 보고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인천시의회)

### 일본 오사카 찾아 친환경자원순환정책 시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결 모색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해외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 우수 사례 등을 보고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과 박용철(국·강화)·이순환(민·서구5)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오사카시 일대를 둘러보는 해외 시찰에 나선다.

오사카시는 산경위 소관 업무인 친환경 자원순환정책과 도시녹지조성 분야에서 우수도시로 손꼽힌다.

우선 첫째 날에는 오사카의 랜드마크가 된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인 마이스마 조각장을 방문한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가동된 마이스마 조각장은 인공섬에 건립된 독특한 디자인의 자원순환시설로 혐오시설이 아닌 랜드마크로 사랑받는 곳이다.

둘째 날에는 오사카만에 설치된 해상매립지 '피닉스 센터'를 찾아 생활 폐기물 처리 방식 등을 둘러보며 선진 매립 정책을 벤치마킹한다.

마지막 세째 날에는 오사카 도심에 흐르는 요도강 수변에 조성된 '사쿠라노미야 공원'에 둘러 경인아라랫길 수변공원에 적용할만한 사례를 수집하는 등 인천시의 도시 하천을 주요 관광 인프라로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한다.

이번 시찰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인천시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자를 찾기 위해 산경위 소속 위원들이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두 번째 해외 시찰에 나서는 산경위의 시찰 기간을 2박 3일로 압축해 필수 견학 시설 외의 불필요한 일정을 배제했고, 예산 절감을 위해 여행 경비 일부는 위원들이 자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해권 위원장은 "최근 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산경위의 이번 시찰은 의원들이 자비로 감당하는 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시찰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인천시에 적용할 만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산경위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해외 시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 정치권, 청년들 향한 '구애의 손짓'

**여야 모두 청년 목소리 청취  
기득권 이미지 쇄신 '관전'**

최근 꺾임 여론조사 결과 청년들이 무당층이라고 답한 경우가 47%에 달해 여·야가 청년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월 1·3~5주 통합 꺾임 여론 조사에서 18~29세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23%·더불어민주당 26%·무당 47%로 나타났다.

18~29세 남녀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30%·민주당 17%·무당은 50%였으며, 여성은 국민의힘이 10%·민주당 31%에 무당이 무려 56%에 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24일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를 출범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의장은 변호사 출신의 홍정민 국회의원, 부의장에는 박영훈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위촉했다.

또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며 4년 만에 청년 대변인 '더블루스피커'를 모집했다. 이에 총 270명이 지원해 지난달 26일 최민석·선다윗 대학생들을 청년대변인을 임명했다.

국민의힘도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달 30일 제1호 누구나 토익 5년을 통한 어학 시험 성적 유효기간 연장, 2호 예비군 이동·학습·생활 3권 보장에 이어 3호 '임시지원자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의무마감' 청년정책연장네트워크를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 알·파·고'라는 정책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입사 지원 시 제출한 서류와 개인정보가 책임 있게 관리되고 파기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정책이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에 관련해 김병민 청년정책연장네트워크 부위원장은 "당의 젊은 청년들 또 외부에 있는 대학 총학생회장들까지 외부 위원으로 모셔서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김병민 부위원장은 "집권당이 아니라 만큼 정부와 함께 청년들이 실질적인 삶을 바뀌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현실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꾸준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면 청년들의 마음을 또 국민의 힘에 가까이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 관련인은 "청년은 총선 스윙보터이지만 기득권에 반하는 세대라고 바라봤다. 따라서 여·야 모두 기득권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현안에 맞는 정책을 쏟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정윤 기자

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김병민 부위원장은 "집권당이 아니라 만큼 정부와 함께 청년들이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현실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꾸준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면 청년들의 마음을 또 국민의 힘에 가까이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 관련인은 "청년은 총선 스윙보터이지만 기득권에 반하는 세대라고 바라봤다. 따라서 여·야 모두 기득권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현안에 맞는 정책을 쏟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정윤 기자

### 김진서 인천 동구 부구청장 취임

**"역점사업 성공적 추진 최선"**

김진서(57·사진) 인천시 자치행정과장이 동구 제32대 신임 부구청장으로 3일 취임한다.

김진서 부구청장은 1988년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인천시 총무과, 감사관과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 부구청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의 신뢰가 두터울 뿐만 아니라 탁월한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부구청장은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던 동구에 부임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민선8기 김진서 부구청장을 잘 보필해 동구의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尹처가 특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발표되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표했다'며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고속도로 총 연장 27km에서 29km로 늘었고 공사비는 966억이 증가했다'며 '변경안이 상습 정체를 6년 국도와 매우 떨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기존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했다.'

홍정윤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지난달 29일 평생교육국·교통국·사회적경제국·경기경제자유구역국과 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열어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 민생현안 정책발굴 '집중'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 4개 실·국과 정담회**

경기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의원은 "장년갑 구애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년갑도서관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태희(민주당, 안산2) 의원은 "안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안산시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협의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석규(민주당, 의정부4) 의원은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개발을 대비하여 체계적·종합적 대중교통정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정윤경·윤태길 의원, 김태희·오석규·한원찬 위원 및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장, 평생교육국장, 교통국장, 사회혁신경제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고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달 초까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과의 정책발굴 정담회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미개최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